

삼청 와드 헌당식 (서울 스테이크)



증축한 삼청 와드의 앞 모습

9월 4일 오후 6시 30분부터 삼청동 5번지에 위치한 삼청 와드는 증축한 예배당을 주님께 바치는 헌당식을 가졌다. 삼청 와드 감도단은 이날 모임에 많은 신권 지도자들을 초청하였으며, 특히 그동안 삼청 와드에서 함께 일했던 형제 자매들을 초청하여 재회의 기쁨을 나누었다. 유 재순 감독의 와드 약사 보고에 이어 최 육환 스테이크 부장은 10여년 전의 일을 회상하며 잠시 말을 잊지 못하였다. 어려운 시기에 지부장 직을 맡았던 최 부장은 신앙으로 한테 뭉친 형제 자매들의 옛 이야기를 하면서 주님께 새삼 감사를 드렸다.

이날 초청된 연사 중에서 이 호남 장로는 말씀하는 가운데 전세 건물로 전전하던 초창기 교회 형제 자매들이 겪었던 어려움을 이야기하였으며 새로 지은 와드 예배당을 사랑의 집, 질서의 집, 그리고 학문의 집이 되도록 노력하자고 강조하였다.

이날 헌납 기도는 이 호남 장로가 행하였으며 모임을 마친 후 기념 촬영도 하였다.

*

레이크 형제 특강 (교회 교육 기구 아시아 지역 책임자)

교회 교육 기구 아시아 지역 책임자인 브르스 엠 레이크 형제가 9월 9일 서신학 연구원에서 90여분간 강의했다. 그는 청소년 문제를 주제로 이야기했으며, 교회 안에서 모범적인 행동 표준과 교회 생활의 즐거움에 대하여 말씀하였다. 레이크 형제는 강의실을 메운 회원들에게 한국 성도들의 교육열에 대해 칭찬을 아끼지 않았으며 질의 응답도 하였다. 강의를 끝난 후 많은 학생들을 위해 자필 서명도 해주었다.

*



레이크 형제



강연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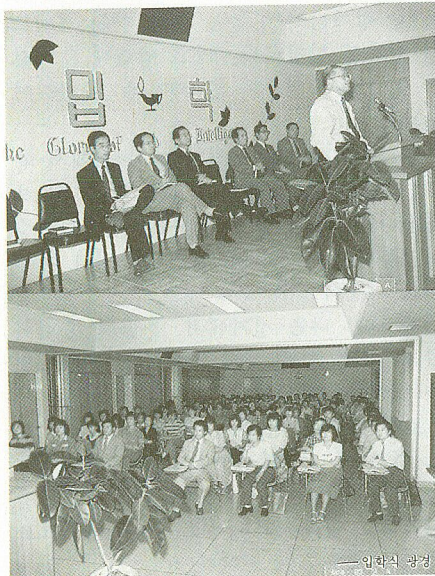


회원들에게 서명을 해주는 레이크 형제

동 신학 연구원 입학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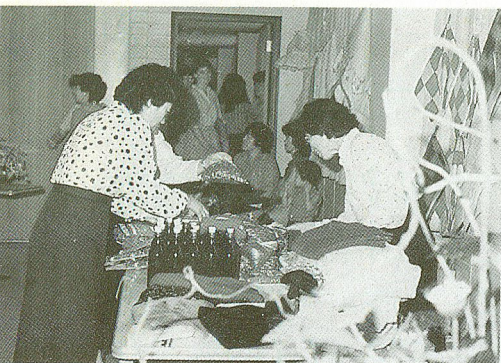
입학식 광경



— 입학식 광경

동 신학 연구원은 9월 3일 오후 6시부터 서울, 동, 영동, 그리고 동대문 스테이크의 각 스테이크 부장, 감독, 지부장, 고등 평의원 등 많은 신권 지도자들과 재학생, 신입생 등 200여 명의 학생들이 참여한 가운데 1983년도 제2학기 신입생 입학식을 거행하였다. 이날 식전에서 최 옥환 부장, 고 원용 부장, 박 재암 부장, 손 승은 부장 등 네 분의 스테이크 부장의 환영사와 동 신학 연구원장인 서 희철 원장과 교회 교육 기구 대표인 이 호남 장로의 말씀이 있었다. 이들 신권 지도자들은 신학 연구원의 존재의 의미와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 입학식을 마친 후 신입생을 위한 오리엔테이션과 수강 신청이 있었으며 재학생들이 준비한 전통적인 떡파티도 있었다. *

알뜰 바자회 (서울 동 스테이크)



바자회에서 물품을 고르는 회원들

서울 동 스테이크는 지난 9월 1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도봉 와드에서 7개 와드, 지부의 70여명의 회원이 참여한 가운데 알뜰 바자회를 가졌다. 이번 바자회에서는 평소에 틈틈히 만든 많은 작품들이 출품되었으며, 오랫동안 준비한 수제품들은 회원들의 많은 눈길을 끌었으며 참여한 회원들은 싼 값에 많은 물품을 구입하였다.

한편 음식 코너에서는 와드, 지부에서 정성껏 만든 음식들이 한층 구미를 돋구었다. *

남태평양 국가에서 지부장이 문교부 장관으로 취임함

교회가 이제 설립 단계에 있는 남 태평양의 키리바티 섬에서 한 훌륭한 교회 회

원이 대통령의 각료가 되어 문교부 장관으로 재직하고 있다.

6년 전 교회에 들어올 때 정부 회계사였던 바이티카 토움 형제는 그 당시 길버트 섬으로 알려진 나라가 독립된 후 1981년에 국회의원으로 선출되었다. 그후 그는 노동부 장관에 임명되었다. 그는 1983년에 실시된 선거 후에 현재의 직위에 임명되었다.

그는 또한 제2차 세계 대전 당시 타라와 전투 격전지가 있었던 베이티오 지부의 지부장으로 봉사하고 있다.

토움 형제는 개종한 후, 열심히 복음을 받아 들여 어느 날 그 당시 지부장이었던 리차드 프랫 형제에게 중요한 시험을 치르기 전에 축복을 해달라고 부탁하였다.

“나는 모든 말에 귀를 기울여 들었고 그것을 나의 일기에 적었습니다.”라고 토움 형제는 회상하였다. 지부장은 그에게 “형제님은 이 나라에서 유명 인사가 될 것이며, 형제님의 이름은 특히 다른 섬에도 잘 알려질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그 섬은 미합중국 정도의 큰 지역에 분산되어 있다.)

“나는 회계사가 어떻게 이 나라에서 유명 인사가 될 수 있는가 하고 자문 해 보았습니다. 오직 유명 인사는 정치가들뿐이었습니다. 그 일이 있는 지 삼년 후에, 나의 이름이 의회에서 발표되는 것을 들었습니다. 나는 선거에서 운 좋게 승리하였고, 그로 인해 나의 축복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토움 형제는 현재는 집에서 모임을 갖고 있으나, 가까운 시일 내에 교회 건물을 갖기 원하는 약 60명의 지부 회원을 감리하고 있다. 키리바티는 괌 마이크로네시아 선교부 소속이다. *